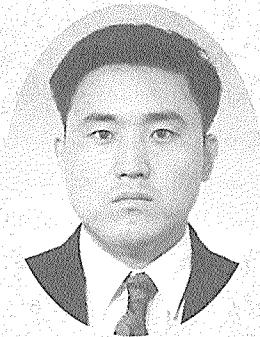


당장 유가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



한 상 인
〈주유소 소장〉

'97 년 1월1일부로 실시되고 있는 유가 자유화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의식과 함께 도약이라는 양면성을 잉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주유소 업계는 경쟁력 확보와 생존 차원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류 판매가격은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주유소 마다 유류마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더 부대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유에서 경쟁비는 물론 일반 잡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유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유가 자유화를 실시한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 유가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몇개월 후에는 유가경쟁이 서서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 되면 유가는 예전의 주유소 확보전

과 같이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즉 치열한 가격경쟁의 늪으로 빠져들어 주유소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유가 자유화와 관련하여 주유소의 가격결정권은 직영 주유소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영 주유소의 경우 직영 주유소 석유류 판매가격에 맞추어 적정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의 결정은 공장도 가격,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부가가치세에 근간을 두어 정유사 가격, 대리점 가격, 주유소 가격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금부담으로 볼 때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유화 이후 유류가격이 크게 변동된 것은 없다. 전년 평균 변동이 월 1회에서 자유화 이후에 월 2~3회인 것을 볼 때 그렇게 탄력적인 유가변동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평균화 시키기 위해 서로 눈치만 보며 가격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가격을 올려야겠지만, 그것도 잠시인 것 같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닥쳐올 위기를 예상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유가자유화에 접근해야 한다.

소비자의 반응을 본다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의 가격변동으로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래서 유류가격 상승에 담담한 것 같다. 일례로 예전 같으면 가격인상에 앞서 주유소에서 만탱크를 주유하는 고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 소규모 변동은 소비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97년 이후의 상황이 출혈경쟁으로 발전할지 미지수지만, 타 주유소보다 과격적인 가격인하를 하였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가격인하 요인을 쉽게 접할 수 없고, 가격인하를 알았다 하더라도

인근 주유소의 가격인하 반격으로 인하여 결국 최종 판매자인 주유소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가격인상, 가격인하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주유소는 소비자 가격을 신중히 검토해 판매해야겠다. 석유류 가격에 따라 주유소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불만은 최종 소비자 와 접하는 주유소에 그 불만이 돌아오고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유소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유소 마진 현실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또한 유가표지판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 자유화 정착에 일조를 해야겠다.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석유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국내 석유류 시장은 우리 스스로 지켜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

예의 소식

석유메이저 '96년 사상최대 수익

歐美 6개사, 고유가·경영합리화 ... 수익 46% 증가

歐美석유메이저들은 지난해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3일 발표된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르면 Royal Dutch Shell, 美Exxon등 구미 6개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27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원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로 전년 대비 3달러 이상 상승했고 과거 수년 동안 진행되어온 정유공장등 하류부문의 합리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유메이저들은 걸프전 이후 국제원유가가 혼미를 거듭하자 자력경쟁의 차원에서 변신을 적극 추진해왔다. 英BP와 美Mobil은 비용절감과 판매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

작년 6억달러의 순이익증가효과를 거뒀고 Chevron은 '91년 이후 비용절감에 힘써 연간 14억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메이저들은 그동안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일관

확대전락을 개선하여 공급과잉으로 채산이 낮은 정유공장을 폐쇄·매각하는 등 하류부문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왔다. <일본경제신문 '97. 2. 14.>

'96년 메이저 경영실적

(단위 : 억달러)

	순이익	매출액
Shell	88 (28.4)	1,719 (14.1)
Exxon	75 (16.0)	1,343 (8.4)
BP	39 (124.5)	607 (6.5)
Mobil	29 (24.7)	807 (7.1)
Chevron	26 (180.3)	438 (18.3)
Texaco	20 (232.4)	455 (23.6)

<주> 괄호는 전년 대비, %